

여성실업 현황과 정책과제

1998. 12.

鄭寅樹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目 次

I. 女性失業 現況과 特徵	1
II. OECD 國家들에서의 女性雇傭과 賃金	11
III. 女性失業 對策의 實態調査 結果	15
IV. 女性失業 對策의 方向	24
參考文獻	29

表目次

〈표 1〉 연령·학력별 여성실업 추이	2
〈표 2〉 여성 취업자의 연령별 추이	4
〈표 3〉 산업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전년동월비)	5
〈표 4〉 실업자 가구주 여부	8
〈표 5〉 여성가구주 실업자(연령층별·학력별)	8
〈표 6〉 여성실업자 가구주 여부*소득	9
〈표 7〉 성별 가구주 여부 전직실업 비율(1998년 8월 현재)	9
〈표 8〉 여성고용 집중별 직업순위	12
〈표 9〉 직업그룹별 여성고용 집중과 임금불이익	13

그림 目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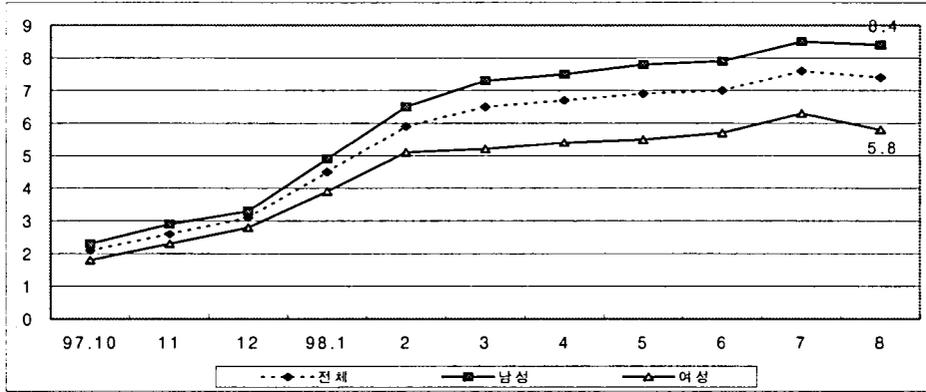
[그림 1] 성별 실업률 추이	2
[그림 2] 성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3
[그림 3] 산업별(제조업/서비스업) 여성 취업자 증가율 추이(전년동월대비)	6
[그림 4] 제조업 직종별 여성 취업자 증가율 추이	6
(전년동월대비)	
[그림 5] 종사상 지위별 여성 취업자 증가율(전년동월비)	7

I. 女性失業 現況과 特徵

□ 여성 실업은 전체 실업자수 중 1/3을 차지하고, 저학력층에서 높음

- '98년 8월 중 여성 실업자수는 49만7천명, 실업률 5.8%로 전년동월(16만 8천명, 실업률 1.9%)에 비해서 실업자수는 약 3배 증가하였음. 그 중 고졸이 40만2천명(5.7%), 대졸이 9만4천명(6.5%)임([그림 1], <표 1> 참조).
- 15~19세 연령층의 실업자수는 3만6천명에 불과하지만 이 연령층의 학력은 대부분 고졸 이하의 신규 실업자들임.
- 20~29세 연령층의 경우 실업자수 19만8천명, 실업률 9.3%로 15~19세보다는 실업률이 낮으나 여성 전체 실업률 5.8%에 비하여 3%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나며 실업자수 또한 절대치 면에서 가장 많은 계층임.
- 30~39세, 40~50세 연령층은 실업자수가 각각 11만6천명, 11만5천명, 실업률 5.5%, 4.5%로서 실업률은 전체 평균보다 낮지만 실업자수는 여성 전체 실업자수의 23.3%, 23.1%를 차지함.
- 여성실업은 실업자수 면에서 청년층(29세 이하)의 신규실업자와 중년층 이상의 저학력 실업자로 대별되는 것이 특징임.

[그림 1] 성별 실업률 추이



<표 1> 연령·학력별 여성실업 추이

(단위: 천명, %)

	1997년			1998년			
	5월	6월	8월	5월	6월	8월	
전 체	550(2.5)	496(2.3)	465(2.1)	1,492(6.9)	1,529(7.0)	1,578(7.4)	
남 성	338(2.6)	316(2.5)	297(2.3)	1,015(7.8)	1,034(7.9)	1,081(8.4)	
여 성	212(2.3)	180(2.0)	168(1.9)	476(5.5)	495(5.7)	497(5.8)	
여성 전체	212(2.3)	180(2.0)	168(1.9)	476(5.5)	495(5.7)	497(5.8)	
고졸 이하	152(2.0)	129(1.7)	-	368(5.1)	399(5.5)	402(5.7)	
대졸 이상	60(4.4)	51(3.7)	-	109(7.3)	96(6.4)	94(6.5)	
연	15~19세	18(7.1)	23(9.1)	14(5.8)	30(13.1)	35(15.7)	36(15.8)
	고졸 이하	18(7.1)	23(9.1)	-	29(12.8)	35(15.7)	36(15.8)
령	20~29세	115(4.8)	100(4.1)	97(4.1)	196(9.0)	206(9.4)	198(9.3)
	고졸 이하	65(4.1)	56(3.5)	-	110(8.3)	132(9.9)	126(9.7)
별	대졸 이상	51(6.1)	44(5.3)	-	85(10.0)	74(8.7)	72(8.7)
	30~39세	36(1.6)	26(1.2)	27(1.3)	115(5.3)	109(5.0)	116(5.5)
령	고졸 이하	30(1.6)	22(1.2)	-	100(5.7)	91(5.2)	98(5.8)
	대졸 이상	6(1.7)	4(1.2)	-	25(3.5)	18(4.1)	19(4.2)
별	40~54세	36(1.4)	27(1.0)	25(1.0)	111(4.2)	118(4.5)	115(4.5)
	고졸 이하	34(1.4)	25(1.0)	-	105(4.3)	114(4.7)	113(4.7)
령	대졸 이상	3(1.7)	2(1.5)	-	7(3.7)	3(1.7)	3(1.6)
	55세 이상	7(0.4)	4(0.2)	5(0.3)	25(1.7)	28(1.9)	30(2.1)
별	고졸 이하	7(0.4)	4(0.2)	-	25(1.7)	28(1.9)	30(2.1)
	대졸 이상	0(0.0)	0(0.0)	-	1(2.4)	1(2.4)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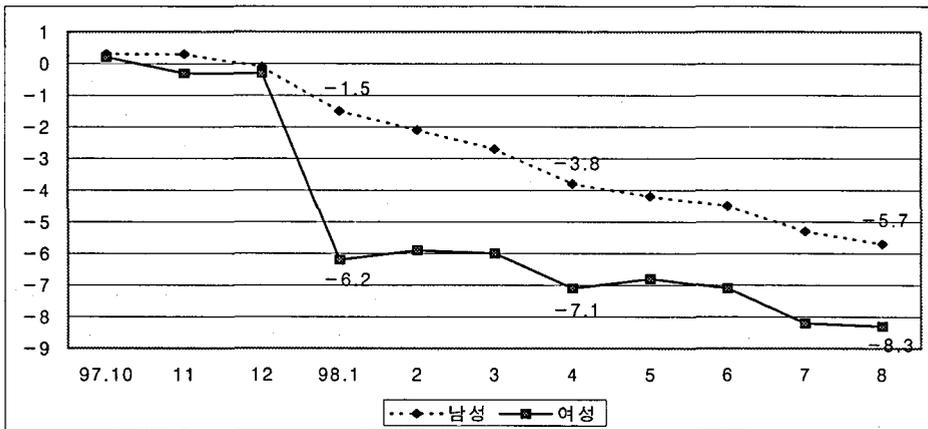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통계임.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과.

□ 모든 산업, 모든 직종에서 여성 취업자의 대폭적인 감소(전년동월비)

- 한편 여성층의 실업률 증가는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과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 월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IMF 자금지원 직후인 '97년 12월 47.9%에서 '98년 6월 48.1%, 7월 47.6%, 8월 46.9%를 기록하고 있어서 실업이 곧바로 비경제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여성들의 실업이 증가하면서도 재취업 혹은 신규취업의 기회가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냄([그림 2] 참조).

[그림 2] 성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전년동월비 여성취업자 추이를 살펴보면 15~29세 여성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추세가 다른 연령층의 감소폭보다 월등히 크게 나타남(<표 2> 참조).

〈표 2〉 여성 취업자의 연령별 추이

(단위: 천명, %)

	1997년			1998년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15~19세	229(-0.1)	250(2.3)	232(-5.5)	188(-18.2)	196(-21.7)	192(-17.5)
20~29세	2,308(2.0)	2,306(-0.2)	2,285(-0.2)	1,982(-14.1)	1,969(-14.6)	1,934(-15.4)
30~39세	2,125(-1.1)	2,100(-1.0)	2,067(-1.6)	2,066(-2.8)	2,028(-3.4)	2,001(-3.2)
40~54세	2,605(5.2)	2,594(5.4)	2,591(5.5)	2,505(-3.9)	2,464(-5.0)	2,462(-5.0)
55세 이상	1,570(6.2)	1,558(5.6)	1,570(6.7)	1,466(-6.6)	1,426(-8.5)	1,431(-8.8)
전 체	8,838(2.8)	8,808(2.3)	8,745(2.1)	8,207(-7.1)	8,084(-8.2)	8,020(-8.4)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 15~19세 여성의 경우 '98년 8월에 전년동월비 -17.5%로 감소하였으며 20~29세 여성의 경우 -15.4%로 감소하였음.
- 산업별 전체 취업자 증가추세를 보면 '98년 8월 현재, 건설업 및 건설관련 산업인 전기·수도·가스가 각각 -27.7%, -19.0%로 감소폭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15.4%)의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사회개인서비스(9.0%)와 농림어업(3.7%)은 오히려 취업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표 3〉 참조).
- 한편 여성의 산업별 취업자 증가추세를 보면,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과 농림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여성의 감소폭이 남성보다 크게 나타남. 그 중 건설업이 -40.9%로 전체 건설업 감소율인 -27.7%보다 감소폭이 13%포인트 크게 나타나 건설업에서 여성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산업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전년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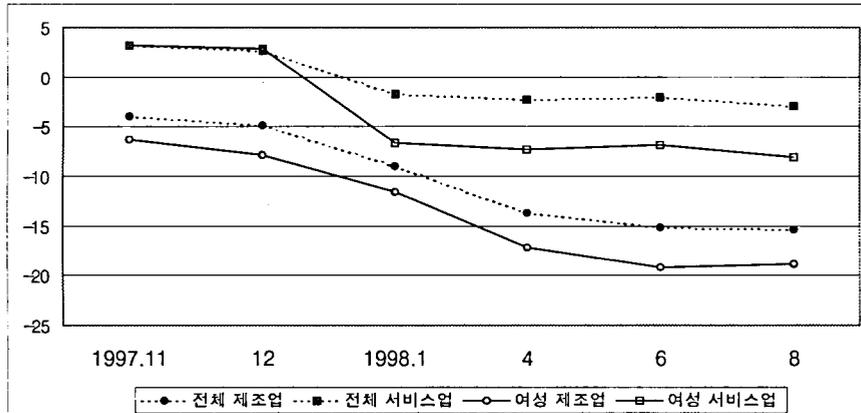
(단위: %)

	1997년		1998년					
	11월	12월	1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 체	0.1	-0.2	-3.4	-5.1	-5.3	-5.6	-6.5	-6.8
농림어업	-6.9	-5.3	1.0	8.8	9.3	7.3	4.1	3.7
제조업	-3.9	-4.9	-9.0	-13.7	-14.4	-15.1	-15.4	-15.4
전기·수도·가스	9.8	8.1	-15.9	-17.4	-25.9	-21.2	-18.2	-19.0
건설업	-1.5	-1.9	-6.1	-19.3	-22.4	-22.9	-25.5	-27.7
도소매·음식숙박	1.6	0.8	-3.5	-4.0	-3.9	-3.4	-4.1	-5.0
운수·창고	4.9	3.2	-1.5	0.8	-0.7	-1.3	-1.3	0.2
금융·보험	7.8	8.1	0.9	-1.2	-0.4	-1.4	-2.3	-2.4
사회개인서비스	2.0	1.8	6.3	3.9	6.9	7.6	9.3	9.0
여 성	-0.3	-0.3	-6.2	-7.1	-6.8	-7.1	-8.2	-8.3
농림어업	-7.0	-4.9	2.1	9.0	9.5	7.2	2.2	1.6
제조업	-6.3	-7.9	-11.6	-17.2	-18.1	-19.2	-18.1	-18.8
전기·수도·가스	18.0	9.7	-33.3	6.2	-18.3	-5.4	-9.6	-15.2
건설업	-1.4	0	-10.8	-29.9	-34.2	-35.4	-36.9	-40.9
도소매·음식숙박	2.3	1.9	-6.2	-6.9	-7.1	-6.4	-7.6	-7.8
운수·창고	3.8	-0.5	-5.7	0.6	-1.7	-6.7	-7.5	-6.2
금융·보험	8.4	8.4	-8.0	-10.7	-9.3	-10.2	-12.5	-11.9
사회개인서비스	-4.8	-3.4	-6.6	-3.0	3.4	1.7	6.4	6.3

- 제조업(-18.8%)도 전체 감소폭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밖에 여성 취업자가 전체 수치보다 현저히 감소한 산업은 금융·보험(-11.9%), 운수·창고(-6.2%), 그리고 도소매·운수·숙박(-7.8%)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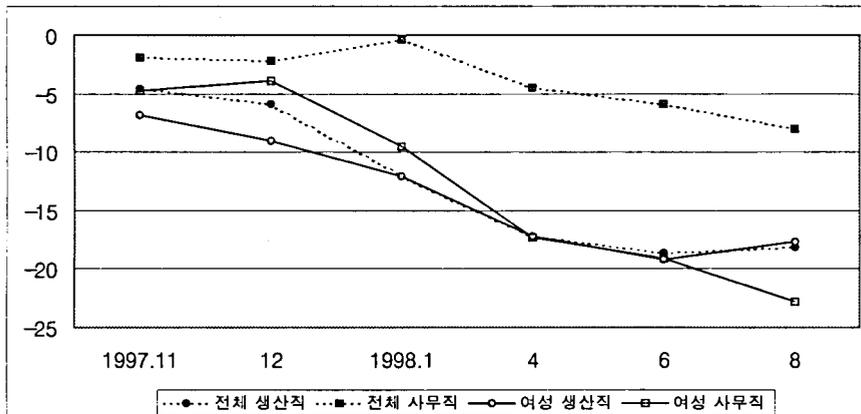
-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살펴본 산업별 전체 취업자 감소는 '98년 8월 현재 제조업 -15.4%, 서비스업 -2.9%인데 반하여 여성 취업자의 감소는 각각 -18.8%, -8.1%로 모두 월등히 높게 나타나 여성들의 일자리 감소가 모든 산업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그림 3] 참조).

[그림 3] 산업별(제조업/서비스업) 여성 취업자 증가율 추이(전년동월대비)



- o 직종별 취업자 증가율을 보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 -17.7%, 사무직 -22.8%로 나타나 제조업에서의 정리해고가 여성사무직이 우선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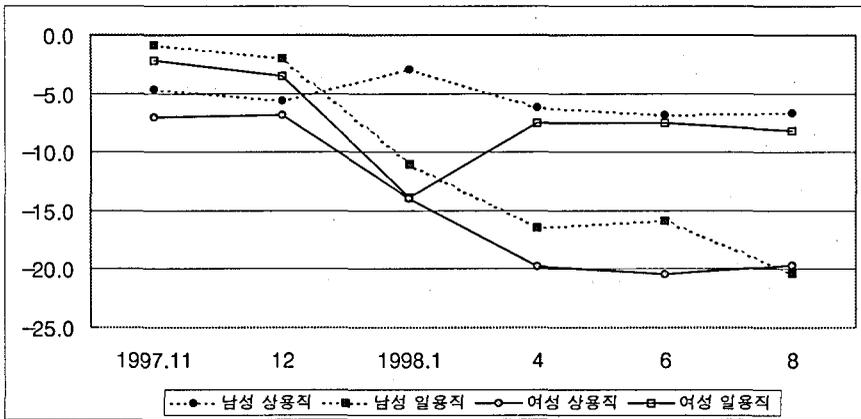
[그림 4] 제조업 직종별 여성 취업자 증가율 추이(전년동월대비)



○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생산직(-1.0%)보다 사무직(-9.4%)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음.

-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일용직에서(-20.3%), 여성은 상용직에서(-19.7%) 대폭 감소하였음. 이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고용불안을 더 크게 겪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음([그림 5] 참조).

[그림 5] 종사상 지위별 여성 취업자 증가율(전년동월비)



□ 여성가장 실직자 8만6천명, 고졸 이하 88%

- 실업자들의 가구주 사항을 살펴보면, 여성가장 실업자는 8만6천명으로 여성실업자 5명 중 약 1명이 가장의 지위에 있어서 실업여성이란 곧바로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줌(<표 4> 참조).

- 여성실업자 가장의 연령계층별 비율을 보면 20~29세가 27.4%, 30~39세 23.4%, 40~54세 37.1%로서 대부분이 30~54세 계층에 있는 중년여성들로 나타났음. 따라서 중년여성 가장실직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표 4〉 실업자 가구주 여부

(단위: 천명)

	가구주	비가구주	전 체
남 자	607(60.3)	399(39.7)	1,006(100.0)
여 자	86(18.0)	393(82.0)	479(100.0)
전 체	693(46.7)	792(53.3)	1,485(100.0)

주: 가구주: 그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의 지출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생계책임자를 말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8. 2/4분기.

- 한편 학력별 여성가구주 실업자 분포를 보면, 고졸 이하가 약 87%(중졸 40.6%, 고졸 4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학력층 여성 가장들의 실업문제가 심각함(〈표 5〉 참조).

〈표 5〉 여성가구주 실업자(연령층별·학력별)

(단위: 천명)

가구주	연령층별	15~19세	20~29세	30~39세	40~54세	54세이상	전체
		2(2.2)	24(27.4)	20(23.4)	32(37.1)	9(10.0)	86(100.0)
가구주	학력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이상	전체
		35(40.6)		40(46.9)		11(12.5)	86(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8. 2/4분기.

- 여성실업자의 실직전 임금소득을 보면, 가구주의 75%가 50~100만원 사이에 존재하여 비가구주에 비하여 여성가장 실업자들이 저소득계층임을 보여줌(〈표 6〉 참조).

〈표 6〉 여성실업자 가구주 여부 * 소득

(단위: %)

	가구주	비가구주
전 체	100.0	100.0
50만원 미만	3.1	0.4
50~100만원 미만	75.4	83.2
100~150만원 미만	21.5	15.5
150만원 이상	-	0.9

주 : 이직시기 1년 미만 전직실업자
 자료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자료와 노동부 직종별 임금구조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한국노동연구원 추정치

- 가구주별 전직여부 및 실직기간을 보면,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전직 실업자가 약 95%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이직시기는 1년 미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음.

o 전직 실업자들의 이직시기를 보면 남성 실업자 가장보다는 여성가장 실업자의 이직기간이 1년 이상 비율이 좀더 높게 나타났음(〈표 7〉 참조).

〈표 7〉 성별 가구주 여부 전직실업 비율(1998년 8월 현재)

(단위: 천명, %)

	신규 실업자	전직 실업자	이 직 시 기	
			1년 미만	1년 이상
전 체	86 (5.4)	1,492 (94.6)	1,370 (86.8)	123 (7.8)
남 성	54 (5.0)	1,027 (95.0)	960 (88.8)	67 (6.2)
가구주	6 (1.0)	640 (99.0)	622 (96.3)	18 (2.8)
비가구주	48 (10.9)	387 (89.1)	337 (77.7)	50 (11.4)
여 성	32 (6.4)	465 (93.6)	410 (82.5)	55 (11.1)
가구주	1 (0.9)	100 (99.1)	92 (91.4)	8 (7.8)
비가구주	31 (7.8)	365 (92.2)	317 (80.2)	47 (12.0)

□ 분석의 결론

- 여성실업 대책은 중년층의 저소득·저학력 여성가장 실직자와 청년층 신규 여성실업자 그룹으로 양분화되어야 함을 보여줌.
- 여성들의 경우 취업으로부터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하는 실망실업자가 많이 나타나는 특색을 보임. 따라서 이들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실질적 실업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서 취업자 감소가 남성보다 뚜렷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평균 -18%), 특히 사무직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음. 즉, 정리해고의 우선대상이 여성사무직 상용인 것으로 판단됨.
-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판매직 및 생산직에서의 취업자 감소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성별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여성가장 실직자는 이들 산업에서 주로 양산되고 있음.

II. OECD國家들에서의 女性雇傭과 賃金

□ 女性の 고용

- 여성고용은 10개 직업에 60%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판매, 사무직, 간호사, 교사에 50% 집중
 - 노르웨이, 호주, 영국, 서독, 캐나다, 프랑스, 미국 등 7개국의 지난 15년간 여성고용 연구에 의하면 10개 직업이 여성고용을 지나치게 대표하는 편중현상을 보임(참고: OECD, Working Paper 98호(Labo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26호), The Concentration of Women's Employment and Relative Occupational Pay: a Statistical Framework for Comparative Analysis, 1997.).
 - 특히 1980년 이후에는 교사직에서 여성의 약진이 뚜렷하여 7개국 모두에서 교사직은 10위 내에 포진
 - 상위 10개 직종에 파트타임직이 많으며, 노르웨이, 서독, 영국에서 특히 두드러짐(〈표 8〉 참조).

□ 女性の 임금

- 여성의 평균임금 불이익(wage penalty)은 지난 15년간 감소추세(〈표 9〉 참조).

〈표 8〉 여성고용 집중별 직업순위

(단위: %)

직업	ISCO 코드	여성 집중도	남성 집중도	성비율	여성 시간직
가게, 매점, 시장의 판매인	522	8.3	2.9	67.0	44.1
비서와 키보드를 다루는 사원	411	8.3	1.2	80.3	23.7
가정과 관련된 도우미, 청소, 세탁	913	7.0	0.8	85.5	55.0
여타의 사무직	419	6.1	2.1	67.6	31.6
개인 간호 및 그와 관련된 일	513	5.9	0.5	88.9	38.4
계산대 종사	412	4.9	1.7	67.3	20.2
가정호텔 서비스직	512	4.9	2.1	57.9	41.1
행정관련 전문직	343	4.0	1.5	64.8	21.1
중등교육 교사	232	3.1	1.7	57.2	23.9
간호 및 조산관련 전문직	323	3.1	0.4	84.5	26.9
상위 10결		53.3	15.0	71.8	34.5
회계 및 금전출납과 관련된 사무	421	2.3	0.8	66.7	39.1
초등 및 유아교육 교사	233	2.3	0.4	79.3	17.9
재무 및 판매관련 전문직	341	2.0	3.3	30.2	18.0
섬유, 의상관련 상업종사자	743	1.9	0.5	74.6	18.7
중소기업 간부직	131	1.7	2.7	31.4	19.9
여타 개인 서비스직	514	1.7	0.3	80.4	29.8
제조업 노동자	932	1.6	1.6	40.9	30.0
간호 및 출산 전문직	223	1.4	0.1	87.6	39.9
원예 및 곡물 생산직	611	1.3	1.9	32.7	27.0
여타 전문경영인	123	1.2	1.7	34.0	19.8
상위 20결		70.8	28.3	64.0	32.3
전체		100.0	100.0	41.0	30.7

자료 : OECD, *European Labour Force Survey*, OECD Working Paper Vol. V, No.98호, 1994, p.47(Table 5).

- 1982 ~ 92년 사이의 여성임금의 남성의준에 대한 비율은 63%에서 73%로 증가
- 호주에서는 1987 ~ 95년 사이 82%에서 80%로 약간 하락
- 그러나 여성이 집중된 10개 직업에서의 여성의 남성대비 임금격차는 여타 직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악화됨.

〈표 9〉 직업그룹별 여성고용 집중과 임금불이익

	연도	여성집중 비율	상대적인 임금			연도	여성집중 비율	상대적인 임금			
			총비율	전업	시간직			총비율	전업	시간직	
노르웨이	1980	상위5대직업	61.5	72.6	70.4	74.2	1993	53.8	77.6	77.6	78.6
		상위10대직업	81.1	72.3	71.6	73.9		77.0	80.0	81.6	76.5
		그외 직업	18.9	106.2	96.3	114.8		23.0	85.2	86.5	81.2
		총 계	100.0	78.7	77.4	80.2		100.0	81.2	83.1	77.6
호주	1987	상위5대직업	40.4	81.9	79.5	86.1	1995	39.5	74.6	74.5	75.7
		상위10대직업	63.7	82.5	82.6	82.3		63.0	73.6	76.7	70.0
		그외 직업	36.3	81.7	79.6	90.3		37.0	90.6	88.9	89.1
		총 계	100.0	82.2	81.4	84.7		100.0	79.9	82.0	75.3
영국	1986	상위5대직업	48.3	60.5	63.5	58.1	1995	37.9	54.5	56.4	52.0
		상위10대직업	68.9	63.5	70.2	54.2		60.4	66.6	78.4	56.9
		그외 직업	31.1	73.1	80.1	67.4		39.6	77.2	92.0	67.8
		총 계	100.0	66.5	74.1	56.9		100.0	70.8	79.6	59.6
서독	1980	상위5대직업	75.3		61.1		1990	59.0		61.3	
		상위10대직업	73.3		64.1			73.9		63.8	
		그외 직업	26.7		85.7			26.1		92.0	
		총 계	100.0		70.2			100.0		71.7	
캐나다	1980	상위5대직업	47.4	63.2	63.6		1990	42.2	65.2	65.7	
		상위10대직업	68.4	68.2	71.3			66.7	70.3	73.6	
		그외 직업	31.6	70.1	70.7			33.3	78.7	77.6	
		총 계	100.0	68.8	71.1			100.0	73.1	75.0	
프랑스		상위5대직업					1992	56.2	66.3	67.5	60.8
		상위10대직업						67.6	69.2	70.6	62.6
		그외 직업						32.4	94.3	97.5	91.0
		총 계						100.0	77.3	80.8	69.5
미국	1982	상위5대직업	46.0	54.7	56.8	51.1	1992	43.1	65.1	70.7	54.4
		상위10대직업	67.5	59.0	61.0	55.5		63.6	65.7	69.2	58.2
		그외 직업	32.5	71.4	72.5	68.5		36.4	85.5	85.2	85.8
		총 계	100.0	63.0	64.9	58.9		100.0	72.9	75.4	67.0

주 : 상위 5대 직업그룹과 10대 직업그룹은 총여성고용 중에서 집중에 따라 순위를 매긴 직업그룹.

자료 : OECD, OECD Working Papers Vol.V, No.98,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26), 1997, p.49(Table 7).

- 여성의 남성대비 임금비율이 1982년 63%, 10개 직업 59%로부터 1992년 각각 73%, 66%로 상승하여 일반직업에서의 격차가 10% 상승한데 반하여 10개 직업은 4%포인트 상승에 그침.
- 나라마다 다르나 노르웨이, 호주는 임금격차가 작고 영국, 서독에서는 상대적으로 크며 미국과 프랑스는 그 중간임.
- 파트타임 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아주 낮아서 파트타임과 정규직 임금격차 또한 10개 여성 집중직업만큼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남. 그러나 파트타임 근로에서의 남성, 여성 임금격차는 정규직에서의 격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음.
- 여성집중 10개 직업에서 나타난 성별 임금격차 약화와는 달리 판매, 청소, 요리서비스 등의 직업은 1980년대부터 활성화된 파견근로 등 민간부문에서의 여성고용 주요 성장영역으로서 노동시장 유연성과 성별 임금격차가 함께 비례함을 보여줌(OECD 보고서, 1994).
- 반면 고위관련, 기업관리직, 간호사, 교사 등의 전문직업에서는 높은 수준의 고용기회와 성별 임금격차의 완화를 보이고 있음.

□ OECD 여성연구의 결론

- ① 10개 직업에 여성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음.
- ② 파트타임, 파견근로 직업에서의 여성고용 증가가 지난 15년간 뚜렷하였으나 이는 성별 임금격차 및 정규직과 파트타임간의 임금격차를 동반하고 있음.
- ③ 전문직의 경우 여성 고용기회 증가와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나타냄.
- ④ 서비스 부문과 공공부문에서의 여성고용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OECD, *Women and Structural Change: New Perspectives*, 1994).

Ⅲ. 女性失業 對策의 實態調査 結果

- 정부의 여성失業 對策은 여성가장 실직자 對策에 主안점이 모아지고 있으며, 여성가장 실직자 對策으로는 채용장려금제도의 도입, 특별직업훈련과정의 신설, 그리고 사회복지 도우미라는 명칭의 공공근로사업의 세 가지 형태가 추진되고 있음.

□ 여성가장 실직자 채용장려금제도

1. 사업개요

-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失業者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한 임금의 1/2 (대기업: 1/3) 해당 금액을 6개월간 지급

2. 현 황

- '98. 10. 1일부로 시행하여 시행 초기라는 점과 홍보의 절대적 부족으로 사업주의 인지도가 낮아 실제 집행은 아직 없는 실정
 - 채용전 사전신고제가 없기 때문에 실제 시행건수는 99년 1월 말에 파악 가능

3. 문제점 및 개선책

- 서울 서부지역 업체들을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홍보부족으로 여성가장 실직자 채용장려금제도를 알고 있는 업체는 없었음.

- 고용보험이나 실업자 대부 등의 사업은 그 자체만으로 홍보물이 제작·배포되었으나 여성가장 실직자 채용장려금제도는 고용보험 홍보 팜플릿 중에 여성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 일부로서 제시되어 있을 뿐이므로 사실상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 여성가장 실직자 채용장려금제에 대한 홍보가 노동공급자인 여성가장들 개개인에 대한 홍보책자인 『여성 취업,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에만 수록되어 여성가장 실직자 노동수요자인 사용주에 대한 홍보는 부족한 실정임.
- － 노동사무소 실무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제도상의 문제
- 지방노동관서 실무담당자의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양호한 편이나 일부 지역 담당자의 경우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함.
 -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례발생시 대응에 대한 실무 담당자의 인지도는 낮은 편임.
 - 예를 들어 제도 자체가 3개월 고용후 익월 말 신청할 경우 임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3개월 중 2개월만 채용한 후 이직 또는 해고되었을 경우 2개월의 임금만 지급할 것인지, 완전무효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노동관서 알선을 통한 취업의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수혜의 폭이 줄어들 우려가 있음.
- － 본부 차원의 홍보 필요
- 지방노동청이나 노동사무소에 홍보를 일임할 경우 지역별로 홍보의

효과와 과급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 홍보 필요

- 일선노동관서 업무 연계체제 강화

- 여성가장 실직자의 취업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과 구인알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각 노동사무소와 직업훈련기관이 취업이 가능한 업체에 채용장려금제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구인알선과 직업훈련을 긴밀히 연결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장 특별직업훈련

1. 사업계획 내용

- 피보험자가 아닌 실업자로서 세대주인 여성 또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여성에게 월 20만원 내외의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월 30만원 수준의 훈련수당을 지급함.
- 특별 직업훈련은 '98.10월부터 3,000명 훈련예정으로 창업·부업직종과 취업가능직종 중심으로 훈련하며 훈련비 전액 국고지원 및 훈련수당(월 25~40만원) 지급함. 또한 여성가장 자영업 희망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규모 점포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토록 조치('99.1월부터 시행 예정)
- 구체적으로는 “일하는 여성의 집” 및 특별훈련학원으로 지정된 일반 학원에서 애니메이션(채색, 선화), 한복만들기, 판매 및 텔레마케팅, 요리, 컴퓨터그래픽, 치매관리 호스피스, 간병인, 피부미용, 메이크업 등의 과정을 개설 운용하고 있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재 3개월인 훈련기간을 다양하게 하여야 함.

- 3개월 과정으로는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할 과목들이 많음. 6개월로 늘려 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임.
- '일하는 여성의 집' 양식조리사반의 경우 훈련종료와 자격증 시험 사이에 2개월의 시차가 있어 훈련종료후 대책이 요구됨.

－ 비용인정문제

- 일하는 여성의 집의 경우 예상보다 실습재료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훈련비 추가지급의 필요성 제기

－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직업전문학교나 인정직업훈련기관에 표준 훈련비에 대한 가중치로 각각 1.0과 0.9를 부여하면서 시설보충의 필요가 큰 일하는 여성의 집에 가중치 0.7을 부여한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토로됨.

－ 해당 노동관서는 훈련기관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여 가중치를 정하거나 합당한 기준에 충족하게 되면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도입할 생각이라고 함.

- 합당한 가중항목으로는 교사의 자격, 설비와 장비의 수준 등이 있음. 이러한 개선방안은 지금과 같이 일률적인 가중치 부여보다는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훈련기간중 일자리 알선

- 현재 개인당 지급되고 있는 훈련수당은 월 25만원 정도인데, 이 수당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훈련수당만으로는 생계유지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훈련기간중에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길 바라고 있음(오후 1시 30분까지인 현재의 훈련시간을 조정할 경우 가능).

— 새로운 훈련직종의 개발

- 글쓰기·독서지도사와 아동지도사, 소규모 꽃집경영의 훈련과목은 훈련직종에 포함되도록 조치
- 훈련과정 선정시 훈련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통해 훈련과정을 배정할 필요가 있음. 훈련방식, 교사수준, 설비와 장비의 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훈련능력이 다름.

— 훈련직종 구분의 명확화

- 헤어, 미용과목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훈련과목에 취업에 필요하도록 피부관리, 전문메이크업, 네일아트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 훈련기관에서 실질적 세대주 인정 보증조치 필요

- 훈련생 선별시 생활보호대상이 아니면서 세대주도 아닌 여성가장의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서류를 갖추기가 곤란한 경우 발생
- 인천의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는 남편과 실질적으로 이혼한 여성의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발부하지 않아 훈련을 받지 못할 처지에 있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 이 경우 동사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확인서 발급을 거부함. 이러한 경우에 훈련기관에서 보증을 서는 형태로 확인서 발부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

□ 사회복지 도우미(공공근로사업)

1. 개 요

- 실직여성 가장 및 세대주의 실직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저소득 여성을 유급 사회복지 도우미로 채용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킴.

2. 사업현황

- 계획 : 실직여성 가장 또는 저소득 여성 2,000명에게 4개월간 일자리 제공
- 실적 : 10월 17일 현재 전국 1,282개 사회복지시설에 2,256명 배치(첨부: 시도별 사회복지 도우미 배치현황)
 - 계획보다 많은 도우미를 배치한 것은 당초에는 2,000명을 선발 1998. 8월말~12월말까지 4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추경안이 국회에서 늦게 통과되어 사업기간이 축소되었기 때문임.

3. 문제점 및 대책

- 대상자 선정
 - 사회복지 도우미로 선정된 여성 가운데 실직여성 가장이나 저소득여

성보다는 전업주부 가운데 보조소득원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음.

- 서울 남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도우미로 활동중인 18명 가운데 실직여성 가장이나 저소득여성은 3분의 1 정도라고 함.
- 보건사회부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도우미 선발과 관련 구직등록자에 한하여 도우미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 경우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도우미 신청시 신청서류 강화 등의 개선안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일 듯함. 예를 들어 여성가장에 대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세대주임을 입증하거나 저소득가구임을 입증할 서류 (미과세증명 등)를 제출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

- 사업의 홍보

- 도우미로 활동중인 3명을 면담한 결과 공공근로사업으로 사회복지 도우미에 대한 정보를 신문과 동사무소의 아는 직원의 권유로 신청하였다고 함.
 - 저소득가정의 경우 신문구독률이 낮으므로 결국 동사무소 등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쉽지 않음.
- 보건복지부와 협의회는 현재의 사회복지 도우미 사업을 여성가장 실직자와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도우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기술 및 기능자, 행정경험자 중심으로 사업의 방향을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그러나 복지도우미 사업이 여성가장 실직자나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복지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단지 효율성만을 목적으로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는 문제가 있음.
 -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 및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전문기술 및 기 능자가 필요하다면 도우미 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 임.
- 도우미들의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의 거리를 최초 배치시 충분히 고려되 어야 할 것임.
- 남부장애인복지관(보라매공원)에 파견된 도우미 가운데 주거지가 의 정부와 중랑구에 속해 있는 경우도 있었음. 이러한 경우 출퇴근시간 이 길 뿐만 아니라 교통비 등의 비용도 무시하지 못할 것임.

□ 여성가장 실직자의 특성¹⁾

- ① 전문적인 자격증 취득자가 없으며 기능면에서도 대부분 단순한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남편의 실직으로 직장을 찾거나 IMF로 인한 정리해고 후에도 생계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동일한 직 종은 아니더라도 단순업무직이나 서비스업으로 나서기가 쉬움.
- ② 35 ~ 55세에 이르는 여성가장의 경우는 직업훈련에서 전문직을 훈련받 기가 어려운 저학력층이 많음. 이들이 재교육과 전문직을 위한 훈련을 받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의 생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음.
- ③ 대부분이 저임금을 받고 일을 했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넉넉하지 못하고

1) '전북지역 여성가장의 사례와 대책', 인터넷상 자료, 1998.10.

하루하루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대비로 적금이
나 연금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실직된 경우가 다반사임.

- ④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통보받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
문에 이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회사에
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임금에 대한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⑤ 근로기준법 대상인 5인 근로자 미만 고용사업장에서 대부분이 근무했기
때문에(전북에 위치한 기업규모의 경우 중·소나 영세기업이 80%를 차
지하며 대기업은 20%에 불과함) 실직한 후에도 사회적인 안정망에서 소
외되어 전혀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함(정부에서 올 8월부터 5인 미만 사업
장에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했지만 IMF가 시작되던 작년 12월부
터 올 7월까지 실직된 여성가장에 대한 보장으로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노동부에 등록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사업주가 자진해
서 고용보험에 등록하는 경우는 힘들).
- ⑥ 정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모자원이나 자립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실
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참여조건이 제한되어 있음.
- ⑦ 여성가장의 자녀들 경우에는 저녁 늦게까지 보호시설에 맡길 곳이 없어
불안함.

IV. 女性失業 對策의 方向

□ 여성가장 실직자 대책

- ① 여성가장 실직자를 포함한 여성실업자에 대한 각 시군구청에서 정확한 실태파악
 - 여성가장 실직자를 포함한 여성실업자에 대한 각 시군구청에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저소득자 생활보호그룹, 한시적 생활보호그룹, 직업 훈련대상그룹, 사회복지 도우미 및 공공근로사업대상그룹, 여타 취업알선대상그룹 등으로 목표대상을 분류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실업대책이 가능하도록 nose to nose 실태조사 필요
- ② 사회복지사, 시민단체, 종합복지관 및 종교단체 봉사활동 경험자 등을 실업대책 요원으로 채용
 - 이로써 정부와 실업대책 수요자인 실업자들 사이의 정확한 수요파악과 전달체계를 구축
 - 여성가장 실직자 실업대책에 대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등지에서 실시 실태조사 중 사회종합복지관, 시민단체 등에서 봉사활동자로부터 얻은 정보에 의하면 여성가장 실직자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실업대책전달에 애로사항이 있는 듯함.
 - 수혜자는 중복수혜를 받고 제외자는 계속 제외되는 불합리를 호소하고 있음.
 - 여성가장 실직자에 대한 실업대책비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구청별 및 각 말단행정기관별로 균등히 배분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상의 괴리 발생
 - 조순경 교수는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발족(1998.6.) 이후 두달 동안 접

수된 상담건수는 1,312건인데 반하여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의 노동사 무소별 구직상담 창구인원은 평균 20여명에 불과하여 업무감당이 불가능함을 주장하고 있음.²⁾

③ 여성가장 실직자 민간단체 등록제 도입

-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공공정보망에서 제외되어 있는 계층도 수혜대상이 되도록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등록을 받고 노동부와의 전산 연결

④ 여성가장 실직자 특별직업훈련 및 사회복지 도우미 대상자 선정대책

- 여성가장 실직자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경우 사회복지사, 경실련, 기타 사회봉사단체 등에서 면담후 확인서 발부

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시

- 여성가장 실직자
-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고용보험혜택 제외자
- 휴·폐업 부도 등으로 임금체불 상태에서 실직된 여성근로자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⑥ 여성실업 대책의 각 사업간 유기적 연결

- 현재 여성가장 실직자 대책은 각 사업이 유기적 관련없이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완 필요. 예를 들어 여성가장 도우미의 경우 선발된 인원은 전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의 지속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일부는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받기를 원하고 있음.

2) 「여성실업과 정부의 역할」, 여성실직자 가정의 복지욕구와 '99실업대책 세미나 토론자료, 98.9.30.

□ 청년층 여성실업자 대책

- ① 「여성우선해고」 방지를 위한 여성우선해고 심사팀 구성 필요
- ② 청년층 인턴사원 및 인턴공무원 할당제를 통하여 여성취업 기회의 확대
- ③ 청년층 여성실업자에 합당한 직종 발굴
 - 여성의 전문직으로의 진출추세에 맞추어 여성취업유망직종 발굴
- ④ 청소년 대상 직업안정망 확충
 - 실업계 고교 및 대학내 기존의 취업보도실을 인력은행 지소로 활용하여 직업안정, 직업훈련, 진로지도 역할
- ⑤ 청소년 진로지도 강화
 -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상담, 적성검사, 직업소개, 직업교육훈련, 실업대책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
- ⑥ 대학의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A/S차원의 직업교육훈련 확대 유도
 - 대학이 실업상태인 졸업생에 대하여 취업에 직결되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matching fund를 지원
- ⑦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훈련시설 보완
 - 중장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직업훈련시설 설치가 요망됨. 그러나 당분간 지역내 사업내 직업훈련시설 사용이 바람직함. 이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내 직업훈련시설 사용료 지불

〈부표 1〉 여성 취업자 증가율 추이(전년 동월비)

(단위: %)

	1997년			1998년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전 체	1.6	1.4	1.4	-5.6	-6.5	-6.8
학력별	1.6	1.4	1.4	-5.6	-6.5	-6.8
중졸 이하	1.8	-	-	-14.4	-	-
고졸 이하	-0.4	-	-	-5.1	-	-
대졸 이상	5.4	-	-	9.7	-	-
여 성	2.8	2.3	2.1	-7.1	-8.2	-8.3
중졸 이하	2.2	-	-	-12.2	-	-
고졸 이하	0.7	-	-	-5.8	-	-
대졸 이상	10.7	-	-	5.5	-	-
산업별	1.6	1.4	1.4	-5.6	-6.5	-6.8
제조업	-5.6	-5.1	-5.0	-15.1	-15.4	-15.4
서비스업	4.6	4.3	4.3	-2.0	-2.5	-2.9
여 성	2.8	2.3	2.1	-7.1	-8.2	-8.3
제조업	-8.1	-8.7	-7.9	-19.2	-18.1	-18.8
서비스업	6.7	6.4	6.0	-6.9	-8.0	-8.1
산업/직종별	1.6	1.4	1.4	-5.6	-6.5	-6.8
제조업 생산직	-6.6	-5.5	-5.1	-18.6	-18.9	-18.2
사무직	-2.9	-4.0	-4.7	-5.9	-6.5	-8.0
서비스업 생산직	7.2	6.3	6.8	-3.5	-2.1	-1.6
사무직	3.8	3.6	3.5	-1.4	-2.6	-3.4
여 성	2.8	2.3	2.1	-7.1	-8.2	-8.3
제조업 생산직	-9.6	-9.5	-8.2	-19.2	-17.9	-17.7
사무직	-2.6	-5.8	-6.8	-19.1	-19.0	-22.8
서비스업 생산직	7.5	10.1	11.9	-1.2	-2.7	-1.0
사무직	6.5	5.7	4.9	-8.0	-9.1	-9.4
종사상 지위						
남 성 상용	-2.6	-3.8	-4.3	-6.8	-6.4	-6.7
남 성 임시	6.4	9.6	11.3	-3.5	-6.4	-7.3
남 성 일용	6.0	7.7	7.5	-15.9	-17.5	-20.3
남 성 비임금	1.3	1.5	1.6	0.5	-0.6	-0.4
여 성 상용	-2.5	-5.5	-6.2	-20.4	-19.7	-19.7
여 성 임시	8.8	9.0	8.4	-4.3	-6.1	-6.7
여 성 일용	8.2	9.1	10.3	-7.5	-8.6	-8.2
여 성 비임금	0.9	1.1	1.3	-1.5	-3.3	-3.2

〈부표 2〉 OECD 국가들의 여성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미 국		영 국		프랑스		독 일		일 본		한 국		
	1990	1996	1990	1996	1990	1996	1990	1996	1990	1996	1990	1996	1998.8.
실업률													
여 성	5.5	5.4	6.4	6.4	11.7	14.7	6.1	6.6	2.7	3.0	1.8	1.6	5.8
남 성	5.7	5.4	7.4	9.6	7.0	10.6	4.2	6.4	1.9	1.9	3.0	2.4	8.4
경활참가율													
여 성	67.8	70.1	67.2	67.5	57.2	60.3	56.4	61.5	57.1	58.9	49.9	51.9	46.7
남 성	85.6	84.3	88.3	84.6	75.0	74.5	80.1	79.7	83.0	85.0	76.2	78.6	75.3

주 : 1) 실업률 ILO 기준으로 통일.

2) 각 나라의 실업률 발표로는 1996년의 경우 미국 5.4%, 영국 7.5%, 프랑스 12.6%, 독일 10.1%, 일본 3.4%임.

3) 경활참가율은 15~64세 기준으로 함(OECD 자료).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Comparative Civilian Labor Force Statistics Ten Countries 1959~1997*, 1998.3.

OECD, *Employment Outlook*, 1998.

參 考 文 獻

- 김병숙, 『여성고용유지 및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방안』, 1998.10.
- 김재구, 「98 여성 유망직업 선정」, 한국노동연구원, 1998.12. 발간예정
- 김재구, 『여성실업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1998.9.
- 김태홍·김재원, 『고학력 여성인력의 양성과 활용방안』, 한국여성개발원, 1995.12.
- 노동부, 「98 실업대책사업 종합안내」, 1998.9.
- 박오숙, 「부산지역 여성취업 확대를 위한 현황과 여성고용정책 - 부산지역 여성들의 직업교육·훈련의 실태와 문제점 -」, 인터넷상 자료, 1998.10.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실직여성을 활용한 사회복지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지침」, 1998.7.
-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실업대책본부, 「여성가장 실태조사 보고」, 1998.10.23.
- 어수봉, 「여성실업대책의 기본방향」, 『여성실직자 가정의 복지욕구와 '99실업대책』 세미나,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8.9.30.
- 엄현택, 「여성실업대책」, 『여성실직자 가정의 복지욕구와 '99실업대책』 세미나,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8.9.30.
- 여성연합회, 「공공근로사업 사업안에 대한 여연의 제안」, 1998.
- 「전북지역 여성가장의 사례와 대책」, 인터넷상 자료, 1998.10.
- 조순경, 「여성실업과 정부의 역할」, 『여성실직자 가정의 복지욕구와 '99실업대책』 세미나,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8.9.30.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Tape, 1998, 1997.
- OECD, *Employment Outlook*, June, 1998.
- _____, *The Concentration of Women's Employment and Relative Occupational Pay: A Statistical Framework for Comparative Analysis*, OECD Working Papers, Vol.V, No.98(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26), 1997.

_____, *Women and Structural Change, New Perspectives*, 1994.

여성실업 현황과 정책과제

1998년 12월 5일 인쇄

1998년 12월 10일 발행

발행인 朴 烜 求

발행처 **한국노동연구원**

주 소 150-0110 서울 永登浦區 汝矣島洞 16-2
 中小企業會館 9層
 (代) (02) 782-0141

인 쇄 이환기 확인쇄
 (代) (02) 254-4301

등록일자 1988년 9월 14일

등록번호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